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UNDER A PAINTED SKY

가제 : 색색의 하늘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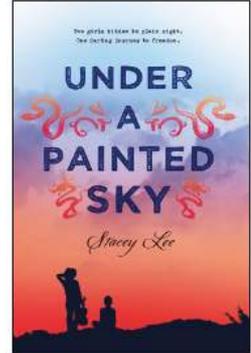
저자 : Stacey Lee

출판사: G.P. Putnam's Sons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5년 3월 1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인종 차별이 극심하던 19세기 미국, 감작스러운 비극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인 소녀의 삶

사만다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던 날, 호출을 받고 달려온 산부인과 의사는 중국인 아기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다며 숨이 넘어가는 엄마를 내버려두고 뺨 하니 가버렸다. 아빠가 뒤늦게 발견했을 때 엄마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사만다만 홀로 남아 있었다. 백인이 아닌 인종에 대한 차별이 그토록 극심했던 1800년대에 태어난 사만다는,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아빠가 있기에 아무 것도 두렵지 않았다. 15살이 된 1849년, 바이올린에 푹 빠진 사만다는 뉴욕으로 가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날만을 꿈꿨다. 미주리 주에서 말린 식품들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아빠는 그런 사만다의 생각과 달리, 당시 한창 붐이 일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동참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소박하지만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거란 희망으로 살아가던 부녀에게, 그 해는 지옥 같은 해가 되고 말았다. 가게에 불이나 삼시간에 번진 불길에 아빠가 목숨을 잃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충격과 슬픔, 세상에 던져 버려진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에 제정신이 아닌 사만다에게 집주인이 어찌된 영문인지 시내 호텔에서 일단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얻어주며 친절을 베풀더니, 그 이상한 배려의 속내가 드러났다. 어느 날 밤, 느닷없이 호텔방에 들이닥친 집주인이 사만다를 강간하려 한 것이다. 그 우악스러운 손길을 피하려고 발버둥치던 사만다는 그만 그를 죽이고 만다. 살기 위해 의도치 않게 저지른 일이었지만, 제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사만다는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기로 결심한다. 다행히 혼자서 아니었다. 노예 신분으로 호텔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흑인 소녀 아나메가 사만다와 함께 탈출 길에 나섰다. 빠져나올 길 없는 삶에 묶여 다 포기하고 사는 대신 자유를 찾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로 마음 먹은 두 어린 소녀의 용감한 여행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나선 여행, 우정과 사랑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두 소녀의 이야기

일확천금의 꿈을 쫓아 '오리건 산길'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끼기로 한 사만다와 아나메. 인종 차별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도 극심하던 세상이라, 두 소녀는 남자로 변장을 하고 다닌다. '새미'와 '앤디'로 이름까지 바꾸고 그렇게 신분을 숨긴 채 여행에 나선 두 사람은 같은 목표로 여행길에 나선 세 명의 마음씨 좋은 카우보이 소년들과 만나 함께 여행하게 된다. 케이, 웨스트, 피티 세 소년은 새미와 앤디가 여자인줄은 꿈에도 모른 채 좋은 친구가 되어 보살펴주고 이끌어준다. 사만다와 아나메는 바싹 말린 물소 똥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밧줄로 말을 묶어 놓고 안전한 곳을 찾아 야영을 하는 등 카우보이 기술들을 하나씩 배우며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지만 마음 한 켠에는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챌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급기야 사만다가 한 카우보이 소년에게 조금씩 우정을 넘어선 애정을 느끼면서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하게 흘러간다.

각자 말 못할 비밀을 지닌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인종과 출신으로 바라본 골드러시의 역사와 19세기 중반의 시대적 상황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소년, 소녀들의 내적인 변화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개된다. 사만다를 통해 전해지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지혜, 기독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시선, 그 시기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음악들, 사만다와 아나메가 보여주는 두 소녀의 깊고 진한 우정이 생생하게 그려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테이시 리(Stacey Lee)는 미국에서 4세대째 살고 있는 중국인으로 UCLA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YA 소설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MOVIE VERSION
가제 : 영화처럼
저자 : Emma Wunsch
출판사: Abrams
발행일: 2016년 10월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하며 살아온 소심한 소녀에게 펼쳐진 삶의 변화를 그린 이야기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졸업생 파티도 차라리 영화에 나오는 파티 장면을 구경하는 편이 백배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영화광 에밀리아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하게 살아왔다. 영화로 비유하자면 캐스팅은 참 좋은데 줄거리가 빈약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것처럼, 가족들이나 살아온 환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괜찮은 편이었다. 부모님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꽤 잘나가는 식당을 운영하시고, 평소에는 더없이 성실하게 일하다가도 휴일만은 꼭 지켜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다. 70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할머니도 함께 살고, 두 쌍둥이 남동생은 늘 짓궂게 까불고 말썽을 부리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게다가 아멜리아에겐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를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 항상 존경하면서도 부러움을 느낀 그 존재는 바로 오빠 토비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아직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는 아멜리아와 달리 토비 오빠는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에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해보는 행동파였다. 아멜리아가 주저할 때마다 씩 웃으면서 팔을 잡아 끄는 오빠 덕분에 아멜리아는 어쩌면 놓치고 살았을 지도 모를 삶의 즐거움을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골고루 경험해보며 살 수 있었다. 외모도 출중해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후배들부터 선배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오빠가 가끔 부럽기도 했지만, 아멜리아는 평생 달처럼, 자신이 토비라는 궤도 주변을 맴도는 위성 같은 존재가 될지언정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아멜리아의 마음과 머릿속에 그토록 크게 자리한 오빠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멜리아가 평생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오빠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었다.

졸업반 선배들의 무도회가 다가오던 6월만 해도 토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어 수업 도중에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에밀리아를 복도에서 발견하고는 대뜸 수업 빠지고 같이 놀자고 하는 토비의 설득에 모범생 에밀리아는 선생님께 혼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가 내려다보이는 동산에 올라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중, 오빠는 학교 남학생들 사이에 제일 인기 많은 여자 선배로부터 무도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투덜댔었다. 하지만 주저하며 갔던 그 무도회를 시작으로 토비 오빠는 그 선배와 본격적인 데이트를 시작했고, 에밀리아는 여름 방학 내내 베이비시터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바람에 한동안 오빠를 보지 못했다.

삶의 기동과도 같았던 오빠에게 내려진 뜻밖의 진단과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친구, 필요한 건 용기

짧다면 짧은 그 몇 달간의 시간 동안, 에밀리아의 삶에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하나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일이다. 평소에 운동이라곤 담을 쌓고 살던 에밀리아는 방에 처박혀 영화만 보다가 지친 나머지 혼자서 바닷가 등대까지 조깅을 하러 나섰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물집이 잔뜩 오른 발로 무작정 걷고 또 걸어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흠뻑 젖어서 걷고 있을 때 에밀리아 앞에 빨간 차 한대가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자신은 살인마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며 아주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다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고, 에밀리아는 그렇게 만난 남자와 서서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토비 오빠의 일이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아가 만난 토비는 왠지 살도 빠지고 썩해 보였지만, 일시적인 일이겠거니 했다. 한번 꽃히면 2주 만에 록 밴드도 결성하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와도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된 토비 오빠에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단이 내려지고, 아멜리아가 평생 알던, 안다고 생각했던 오빠는 사라지고 말았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존재를 잃은 동시에 어쩌면 인생의 큰 계기가 될 인연을 새로 만난 아멜리아는 이후 몰아치는 온갖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 이제는 누군가의 등 뒤에서 위성처럼 맴도는 삶 대신 홀로 당당하게 한 발 나서서, 오롯이 혼자 힘으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영화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급작스러운 삶의 변화로 혼란스러워하는 한 소녀의 고투를 그럴듯하게 엮어낸 참신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엠마 분쉬(Emma Wunsch)는 레바논에서 중고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에서 일하면서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영화 리뷰나 단편소설 등을 다양한 매체에 기고해 왔다.